

『기업 M&A 지원 간담회』

모두 발언

'23. 3. 10.(금) 10:00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 기업 M&A 개념과 중요성

기업 M&A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을 사들이거나(Acquisitions),
둘 이상의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것(Mergers)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기업 M&A는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 외에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업간 주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수도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경영권 경쟁*이나
중소·벤처기업 투자의 자금회수 수단과
연관지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 예: 적대적 M&A 등을 통한 기업지배권 취득

이와 같이 기업 M&A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기업은 M&A를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고,
새로운 기술과 인적 자원을 비교적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 규모의 경제: 기업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효과
- 범위의 경제: 타 산업·품목 등 생산범위 확대에 따라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효과

또한 구조조정을 통해 한계 사업 부문을 정리하는 한편,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자산, 기술, 아이디어가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둘째, 기업 M&A가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의 전환,
IT 산업육성 등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에 성공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기업 M&A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기업들 간의 M&A, 전략적 제휴 등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기업 M&A는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조짐 등으로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시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근로자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마모되는 등 '항구적인 충격'(permanent shock)을 가져와 경제성장 잠재력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간 M&A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회복력(resiliency)을 높일 경우,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다른 어느 국가보다 빨리 회복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Ⅲ. M&A 지원을 위한 노력과 도전과제

정부는 기업 M&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M&A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국내 M&A 시장은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M&A 시장은 그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분간 이와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M&A 시장 위축의 배경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환율 상승 등 우리 경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여건의 악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M&A 관련 제도는 여러 정부부처가 담당하는 다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중층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획기적인 규제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본시장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고, 새로운 산업구조와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이후, 글로벌 산업경제의 지형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혁신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경간 M&A와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향후 정책 추진방향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 M&A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와 같이 기업 M&A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서 대폭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vehicles)도 확충하는 등
M&A를 활용한 시장 중심(market driven)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각국의 신규 먹거리 선점 경쟁,
공급망 재편과 같은 도전요인에 대응하여,
국내기업들이 신산업과 해외 진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M&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M&A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상장법인 합병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V. 마무리말씀

기업 M&A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
시장 참여자가 모두 만족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간담회를 비롯하여
앞으로 공개 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금 우리 경제상황과 향후 경제전망을 고려해볼 때
꼭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 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